



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앞인데…선거구도 못 정한 깜깜이 총선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더불어 현역의원

의 기득권 유지라는 암묵적 담합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종양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는 데드라인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을 방치했다. 선거구 획정은커녕 의원 정수 등의 획정 기준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

거구 획정 기준을 지난 1일 획정위에 제

출하고 5일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정

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한다. 이

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

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획정안이 반영된 공

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 작업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여야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특검·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경기 하남, 경기 화성·병, 인천 서구를, 경기 파주갑, 경기 평택갑·을 등은 인구가 늘어 선거구를 조개는 분구 가능성이, 반대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전북 남원·임실·순창 등은 합구 가능성이 각각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 지역 출마를 노리는 후보자들, 특히 정치 신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분구 가능성 지역인 평택갑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여야 정쟁에 ‘나몰라라’ 뒷전…정치 신인들 ‘분통’ 내년 선거일 임박해서야 또 ‘벼락치기’ 획정 가능성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써도 되는지가 불확실해지고, 잘못하면 회계에서 상당한 문제 발생 소지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역시 분구가 예상되는 화성을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소속 한 예비후보는 “1년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총선에 나오려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바지에 확정되면 유권자는 자기 동네에 누가 나올지 예상 할 수 있거나 하겠나”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는 것은 어제오

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 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깜깜이 선거”는 사실 선거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면서 “예비 출마자조차도 모르는데 유권자는 자기 동네에 누가 나올지 예상 할 수 있거나 하겠나”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강동성 기자

겨울철 소상공인·뿌리기업 전기요금 분납 신청가능

한국전력이 겨울철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등 약 685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5일 한전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납제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된다.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 모바일 앱인 ‘한전:ON’ 등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납을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신청한 달에는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

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2~6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합건물 내 개별 고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계약 전력 20킬로와트(kW)를 초과하거나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분납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름철 전기요금 분납 신청 이력이 있는 고객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신민경 기자

Photo News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어린이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있다.

조국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 총선 출마 재차 시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광주에서 자신의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책을 내고 강한 발언을 하는 것 이 단순히 2019년 이후 제 가족이 당한 시련에 대한 분노 표출은 아니다”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검찰)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기 어렵다.

/ 정희철 기자

SK incheon Petrochem

CARBON TO GREEN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로 환경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다

그린에너지 Provider로 도약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앤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티테크놀로지 SK 이스온

성남도개공 전 사장 “이재명, 대장동 사업 주요 의사결정”

황무성 법정 증언…“공사에선 유동규, 시에선 李가 실질적 결정”



법정 향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사업본부장이 수시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며 당시 유씨가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씨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황씨는 그러면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시에선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게 아니라 시장의 측근이 의사결정을 하는, 즉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는가”라고 묻자 황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런 구조하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씨는 주장했다.

검찰이 “대외적으로 시설물 관리 전담 부서로 알려진 공단 ‘기술지원TF’가 위례·대장동 관련 업무를 검토했는데, 이를 유동규 개인이 할 순 없고 이재명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묻자 황씨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상황도 성남시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측 역시 반대신문을 통해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은 “증인(황씨)과 유한기 본부장은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는데, 결국 신설됐을 때 이를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나”고 물었고 황씨는 “유동규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유씨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대장동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결정됐는데, 성남시 의결대로 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재직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라 물었다.

황씨는 “유씨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

/ 강유성 기자



대구서 연설하는 이준석

이준석, ‘신당 출마자’ 모집 시작 관심 지역구도 조사

온라인으로 취합…“내년 총선에서 역할하고자 하는 사람 찾는다”

신당 창당을 준비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사실상 ‘신당 출마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문구와 함께 ‘구글 닉스’ 신형 링크를 게시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신청 플랫폼에서 “제22대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는다”며 “제공한 정보는 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제공되거나 공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는 ‘정치인 이준석과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정보 획득 및 연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플랫폼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성

별, 연령, 전화번호, 직업·학력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비롯해 관심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공직선거 출마 경험 여부 등도 적도록 했다.

‘관심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예시로는 서울 송파병, 충남 공주·부여·청양, 부산 사상구 등을 들었다. 부산 사상구는 이 전 대표와 충돌해온 장제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에도 같은 ‘구글 닉스’ 플랫폼을 통해 지지자 연락망을 취합했다. 신당 창당 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지난달 말 기준 총 5만여명이 서명했다고 이 전 대표는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경우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날은 이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지 꼭 12년 째 되는 날이다.

/ 황희진 기자

**다양화된 가족 형태 발맞춰
내년부터 가족센터 통합 운영**

여성가족부 이기순차관 & 세종새일센터 간담회

2023.12.4.

[Image: Four people seated around a table during a meeting.]

내년부터 거주지나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한부모 가족과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고령화 가족 등 다양화하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발맞춰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운영 방식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센터는 1인 가구나 다문화, 청소년 한부모 등 특정 대상을 한정해 그에 걸맞은 서비스만을 각각 제공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주 지역과 가

/ 박소희 기자

尹대통령 개각 절반이 여성…관료·전문가 늘고 ‘서오남’ 탈피

경제 부처 중심 인사 반영된 듯…국회의원·법조인 출신 없어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 윗줄 원쪽 두번째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아래쪽 두번째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단행한 개각에서는 관료와 전문가, 그리고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또 이번에 교체된 6명 가운데 3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지만, 별탁 인사 중에는 1명만 포함됐다.

속칭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주류였던 기존 내각의 프로필과는 사뭇 달리진 분위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이 대거 빠진 데다 경제 부처 중심으로 한 인선이어서 이 같은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체된 장관은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6명이다.

여성은 6명 중 3명으로 절반이다.

농식품부·중기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오영주 외교2차관,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등이다.

남성은 기재부·국토부·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우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이 있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 6명 중 여성이 이영 중기부 장관 1명이었던 점과 대비하면 성비 균형을 맞추려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여성 인재 풀을 대거 확충하라고 지시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신 대학별로 서울대 출신은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나아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출신으로 범위를 넓혀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최상우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과, 박상우 후보자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송미령·오영주 후보자는 이화여대 정

치외교학과, 강정애 후보자는 숙명여대 경영학과, 강도형 후보자는 인하대 해양학과를 나왔다.

전임자 중엔 원희룡 국토부 장관(법학)·박민식 보훈부 장관(외교학)·정향근 농식품부 장관(농학)이 서울대를, 주경호 경제부총리(경영학)·조승한 해수부 장관(법학) 등이 고려대를 졸업한 것과 대비하면 출신 대학이 한층 다양해졌다.

정치인 출신이 빠지고 전문가를 중용하면서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박상우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각각 기재부와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다. 오영주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

송미령·강도형 후보자는 각각 환경계획학·해양생물학 박사로 관련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이고, 강정애 후보자는 숙대 경영학 교수로 종장까지 지냈다.

직전에는 국회의원 출신이 4명(원희룡·주경호·박민식·이영주)이었다.

법조인 출신은 없었다. 기존에는 원희룡·박민식 장관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검사를 지냈다.

출신 지역으로는 서울이 최상목·강정애 후보자 2명, 영남이 박상우(부산)·오영주(경남) 2명, 충남 논산 송미령 후보자 1명, 제주 강도형 후보자 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59세로 직전 장관 6명과 같았다.

다만 1970년대 출생의 상대적으로 젊은 인물을 적극 기용할 것이라는 대통령 실 안팎의 관측과는 달리 강 해수부 장관 후보자(70년생)를 제외하고는 모두 50~60년대생이었다.

/ 강민성 기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주택분양보증으로 납부한 분양금을 책임지는
HUG의 행복공식이 함께 합니다!

주거안심 행복공식

[Image: A woman pointing upwards while standing in front of a chalkboard covered in mathematical formulas and graphs.]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주택분양보증으로 납부한 분양금을 책임지는
HUG의 행복공식이 함께 합니다!

윤재옥 “쌍특검·3국조, 정쟁 목적뿐…결코 응하지 않을 것”

“野 정부 예산안 대규모 수정 요구는 예산마저 탄핵하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충분한 법적 정당성이 없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정기국회 뒤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사망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주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진하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

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겹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원내대표, “최악의 개각 경질돼야 할 인사들이 총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에 대해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부처와 관련된 장관들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 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갈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도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커리어 상으로 전혀 방송위원장을 맡을 만한 하등의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선 당시 공약한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정치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줘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노건우 기자

한총리 “민생 어려움 절박…국회 예산·법안 하루속히 처리해야”

“여러 지표 경제 회복세나 국민 체감 부족…특별 물가안정 체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 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고, 정

기 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산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법안이 하루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예산안·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넉 달 만에 문화세를 기록하고, 최근 발표된 수출도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소관 분야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반적 물가 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달 정부 부처가 1천회 넘게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소개하며 “현장을 자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청에 적시에 대응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곽민성 기자

이낙연, 출당 청원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쩌겠나”

‘당 통해 국가 위한 역할 가능하지 않나’ 문자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나”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바라기야 하겠나”라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3일 계시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1만3천여 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계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을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지적하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때 당에서 역할을 요청하면 수락할 것인가’라고 묻자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 없고, 국가를 위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했다.

그는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재차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의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그러긴 어렵지 않겠나. (행사 시) 정권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

/ 조규현 기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서 北위협

역내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8~9일)와 관련,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최종현 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 퍼시픽 다이

얼로고’(Trans-Pacific Dialogue)에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끝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3국간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빠르게 진전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공격적인 핵 태세 및 호전적 수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한미



등 중요한 신행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공동 이니셔티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행사에서 한미일이 공급망 협력을 필요로 하는 5~6개의 핵심 기술을 지정해 공동의 리스트를 만들고자 제언했다.

아울러 리퍼트 전 대사는 세 나라 정부가 업계 리더들을 참여시켜 특정 국가의 경제보복 등에 맞선 공동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조도 진전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론했다.

/ 박현오 기자

“연금, 어디서 할까?”



모~~~든 연금 신한에 물어보세요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
신한은행

퇴직연금, 주택연금, 군인연금, 학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까지 연금은 역시 신한은행

• 23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글연금용 공시와 시장은행 최초 입증영업 체계 · 퇴직연금 수익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드시고 연금수령 IRR 기준으로 운용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 퇴직연금 중은 양립과 장기성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카카오톡 전용채널

• 퇴직연금 대체 수익률은 신한은행 퇴직연금

첫째 아기는 모텔서, 둘째는 공중화장실서 살해…엄마 기소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두 아들을 살해한 장소가 모두 집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각각 확인됐다.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으며 C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를 만에 공중



3년 새 신생아 2명 살해한 엄마 검찰 송치

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었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 시신은 서울 도봉산 일대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고인의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흥명섭 기자



이용원서 손님 지갑 훔친 피의자

“신내림 안받으면 죽어”

제자들 속여 6억 챙긴 유명 무속인



무속인 A씨 유튜브 채널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47·여)씨는 과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구독자 수가 3만명 가까이 되는 유튜브 채널도 6년 전부터 운영했다.

그는 ‘천만원으로 접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와 같은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렸다. 캄캄한 앞날을 희미하게나마 미리 점쳐보려는 손님 중에는 A씨가 나온 TV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A씨 권유로 이른 바 ‘신제자’나 ‘업제자’가 되기도 했다. 무속인한테서 신내림과 함께 별도로 교육받

으면 신제자로, 신내림을 받지 않은 경우 업제자로 불렸다. 2019년 8월 B씨도 점을 보려고 A씨의 신당을 찾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들었다.

“네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불행하게 산 이유는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신내림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B씨는 지금까지 겪은 자신의 고통이 신내림을 받지 않은 탓이라는 충고에 7천만 원을 선뜻 A씨에게 건넸다. 신내림 비용은 TV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A씨 권유로 이른 바 ‘신제자’나 ‘업제자’가 되기도 했다. 무속인한테서 신내림과 함께 별도로 교육받

을 수 있습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와 같은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꾸준히 올렸다. 캄캄한 앞날을 희미하게나마 미리 점쳐보려는 손님 중에는 A씨가 나온 TV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경

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A씨 권유로 이른 바 ‘신제자’나 ‘업제자’가 되기도 했다. 무

속인한테서 신내림과 함께 별도로 교육받

이 막힌다”는 무서운 저주였다.

겁을 먹은 부부는 올바른 신령을 받도록 조상을 천도한다는 이른바 ‘지노귀굿’까지 받기로 하고 1억원을 건넸다.

신내림을 미끼로 제자들을 속이는 A씨의 발언 수위는 날이 갈수록 세졌다. 강한 믿음을 주려면 더 센 악담을 해야 했다.

A씨는 또 다른 손님들에게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어머니가 뇌 질환으로 죽게 된다”며 가족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8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인근 ‘기도 터’에 모인 신제자 7명은 “퇴마를 해야 한다”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신제자의 팔다리를 천으로 감았다.

A씨는 “몸속에 밴이 있으니 빼내야 한다”며 피해자를 움직일지도 못 하게 하고는 흉기와 팔꿈치로 A씨 복부를 1시간 동안 계속 놀렸다. 자궁에서 출혈이 나올 정도였다. 사흘 뒤에는 무당이 되려는 피해자가 신령을 잘 찾지 못하며 모든 옷을 벗게 한 뒤 천물을 뿌리고 육설을 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9명으로부터 모두 6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해 빚만 10억원이 넘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건과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 Ⓜ 정희진 기자



발견된 주사기만 80여개
SNS서 산 마약 유통한 30대 송치

부산해경은 소셜미디어(SNS)에서 구매한 마약을 투약하고 공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SNS에서 필로폰을 주문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숨긴 마약을 선원 B씨에게 찾아오게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공급했으며 자신이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앞서 해경은 마약을 투약한 선원 B씨를 검거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를 검거한 현장에서는 필로폰과 이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80여개가 나오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우연히 친구로부터 마약을 접한 뒤 끊지 못하고 살았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신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마약류 유통 범죄가 SNS로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며 “지인을 통해 확산하는 만큼 마약류에 호기심조차 가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 30분께 사고 차주 A씨가 경찰에 출석해 1차



원장 바쁜 틈 타 이·미용실서 2천500만원 훔친 20대 구속

전국의 이·미용실을 돌며 수천만원을 훔친 20대가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고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경기·대전·부산 등 전국의 이·미용실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원장이 머리하는 틈을 타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거나 손님들이 벗어놓은 상의 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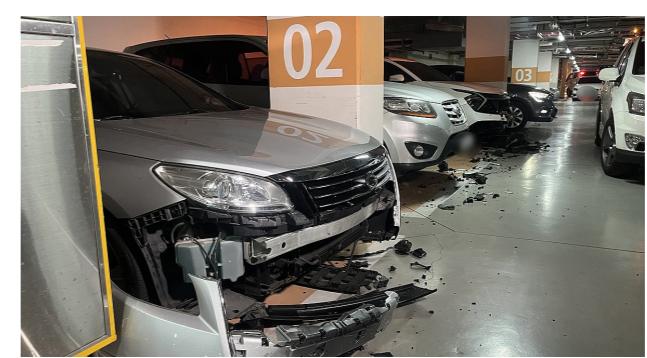
머리를 뒤져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오후 3시 52분께 관내 이 용원 원장으로부터 “누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풀숲에 숨어있던 A씨를 1시간 30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추가 절도 범행을 밝혀냈으며, A씨로부터 현금 410만원과 신용카드 40여장을 회수했다.

/ 김민재 기자

차량 15대 둘이받은 차주, 닷새 만에 경찰 출석 조사



부서진 차량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A씨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감기 기운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행적을 통해 음주 운전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당초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A씨는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이날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입건 전 상태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 적용 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재원 기자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끊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

가자지구 전쟁후 누가 통치하나…美 ‘차악의 대책’ 찾는 중

미, 팔 자치정부에 이양 선호…낮은 지도력·지지도가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하마스 궤멸을 위한 군사 작전을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확대한 가운데 미국은 가자지구 전후 구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나쁜 선택지밖에 없지만 이중 그나마 가장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선호하는 차악의 선택지는 현지 지지도는 낮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활성화해 종전 후 가자지구를 맡기는 것이다.

하마스는 2007년 가자지구에서 PA를 쫓아내고 15년 넘게 통치하고 있다.

문제는 PA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넘기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에 게도 인기가 없는 방안이라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美 국무장관과 팔' 자치 수반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이스라엘과 1주일간 휴전 때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하마스의

권력 이양을 위해서는 누구도 재무장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갖춘 비무장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PA가 가자지구에서 뭔가를 운영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이트 알-오마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PA에 힘을 실어주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랍 국가들을 복잡한 가자지구 권력 이양 논의에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PA를 내세우고 있지만 PA가 최근 몇 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한 것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PA는 그만큼 자신들이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신뢰를 잃었다. 마우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PA 수반은 현재 88세로 18년째 재임 중이다.

PA 장관 출신으로 현지 인권운동가인 사키 이사는 “PA는 부패한 것으로 인식된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출신 사

프란 자랄(28)은 PA는 부패로 가득 찬고, 우리를 통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주

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0일 아바스 PA 수반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PA는 부패와 싸우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은 별개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 박민준 기자



푸틴, 중국산 차량 시찰

우크라 간 러시아군에 중국산 차량 수천대

푸틴이 직접 소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중국산 오프로드 차량 약 2천 대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도시 로스토포나도누에 있는 남부군관구 사령부를 방문, 중국산 오프로드 차량인 ‘데저트크로스 1000-3’을 시찰한 모습이 보도됐다.

쇼이구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해당 차량이 “극히 수요가 많다”고 보고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시찰 현장에 세워진 현황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 차량 기본 모델 537대를 군에 배치했으며, 옵션 추가 모델 1천 500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해당 차량 구매 가격은 기본형이 대당 158만 루블(약 2천 280만 원), 옵션 추가형이 210만 루블(약 3천 3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러시아군이 해당 차량을 동남부 자포리자 지역 등지에 배치했다고 전했

이 회사 차량은 미국에서도 농부 등을 중심으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어 만약 미국이 제재에 나서면 이 회사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측 인사는 러시아군이나 러시아 딜러에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FT에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세관 기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4월에만 데저트크로스 1000-3 137대, 약 160만 달러(약 21억 원)어치를 러시아 민간 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지호 기자

전문가 “나쁜 선택지 중 최선”…팔 주민들 반응은 ‘싸늘’

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인들은 자국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자치권을 일부 박탈하는 과도기에 점경지역 완충지대 설치 등 안보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 후 가자지구의 법과 질서를 누가, 어떻게 유지할지는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데니스 로스 연구원은 종전 후 가자지구의 안정적

현재 PA의 행정·치안 능력과 리더십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자지구에 유엔평화유지군을 주둔시

키는 방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하는 유엔이 향후에도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랍 국가들은 자국 보안군 파병에 회의적이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0일 아바스 PA 수반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PA는 부패와 싸우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유권자들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은 별개로 당장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 박민준 기자

“통일교 관계 부인해온 日기시다, 유관단체장 만난 적 있어”

아사히 보도…기시다 “깅리치 전 美의원 만날 당시 동행자 누군지 몰라” 거듭 부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다”며 “그때 많은 동행자가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다. 이것이 내 인식”이라며 통일교 교단 관련 단체 간부와 만난 기억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내가 이는 한 교단과 관계는 없다”며 자신과 가정연합 간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자당 소속 의원들과 가정연합 간 관계에 대해 비판론이 거세지자 ‘유관단체 모임 출석’ 등을 점검하게 하고 내각 구성 때 교단과의 관계 시정 방침을 받아들인 인물을 각료로 임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오문승 기자

지쿠리 의장도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UPF는 통일교 창시자인 고 문선명(1920~2012)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단체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점검해본 결과 김리치 전 의원 등이 면담을 신청해 만났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정조회장을 맡고 있을 때인 2019년 10월 4일 방일한 뉴트 김리치 전 미국 하원의원과 만났으며 이 자리에 UPF 재팬의 수장인 가지쿠리 마사요리 의장이 배석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다. 당시 면담은 30분 이상 이뤄졌으며 가

“러 탈출 시도 북한인 모자, 블라디로 옮겨져…강제송환 임박”

조한범 통일연구원 위원 주장…“체포된 40대 탈북민은 극단적 선택도”



김금순(43세), 박권주(15세) 탈북모자
-6월 7일 러시아 수사위원회가 체포
-모스크바 대사관 감금
-11월 초 북한 총영사관 이송
-강제송환 임박

러시아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인 모자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으로 이송됐으며 강제 송환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동강TV’에서 지난 6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서

탈출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부(FSB)에 체포된 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감금된 어머니 김금순(43), 아들 박권주(15)가 지난달 초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앞서 조 위원은 김씨가 현지 북한 식당 ‘고려관’의 지배인으로 일했던 박씨의 아내로, 북한에 들어간 남편 대신 대리 지배인 자격으로 고려관을 경영했고 식당 부지배인이 망명을 시도해 연금되자 아들과 탈출을 감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조 위원은 “현재 러시아와 북한 간 강제 송환 공조 체계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은신 중인 탈북 시도 유학생, 노동자들이 위험해 처해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 백경환 기자

경! 플라스틱 인생 2회차 축!
이번 생은 에코시드로!
새롭게. 이롯케.

자원의 소비가 더 이상 지구의 소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롯데케미칼의 자원순환 플라스틱 소재 에코시드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플라스틱 시대를 열어갑니다.

e
ecoseed

금융의 모든 순간

미국주식 투자, 알람은 끄고

미국주식 거래 시간

- 17:00 프리마켓 시작
- 22:30 정규장 시작
- 05:00 애프터마켓 시작

NH농협금융

24시간 NH투자증권을 켜자

NH투자증권이 드리는
해외 주식서비스

-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 ▶ 해외주식 적립식 서비스
- ▶ 월배당 미국주식
- ▶ 미국주식 공모주 청약

주간거래 오픈

언제까지 알람 맞춰가며 미국주식 하실래요?
이제 알람은 싹 끄고! NH투자증권만 딱 켜세요!

NH투자증권에서는 24시간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 기준) 및 제비용 0.0008%(미국주식 기준, 매도시, 1센트 미만일 경우 1센트 부과, 온/오프라인 동일, 국가별 상이) 발생하며, 기타 수수료/제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24시간 거래]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이 승인한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지원 *미국 주간거래 미체결 주문은 프리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간거래 종료 시 취소되며 증거금 해지는 주간거래 장 종료 후 순차적으로 처리 *거래량이 매우 적어 가격변동이 크거나 또는 가격이 왜곡될 수 있음. *당일 권리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를 제한할 수 있음 *위 사유 외에도 시세확인 및 주문전송이 정규장 대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23-00859호 (2023.03.15 ~ 2024.03.14)

투자, 문화가 되다

원희룡 “집값 평균 흐름 꺾여…대출축소·고금리로 하방요인 커”

LH 혁신안 다음주께 발표…“층간소음 추가대책까지 매듭짓고 떠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큰 틀에서 평균적인 흐름이 꺾였다”며 “대출 축소 또는 규제,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0월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분적으로 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마감되는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대출이 제한되는 것이기에 (집값이 10월까지는 부분적으로 상승 움직임을 보였으나) 큰 틀의 평균적 흐름은 꺾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자재와 건축비 상승, 분양 시장 미분양 적체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너무 위축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빠르면 2년, 또는 3~4년 뒤 급격한 공급 축소가 가격 급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 것이고, 그로 인해 극단적 사태는 해소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질문에 답하는 원희룡 장관

원 장관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후임 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립에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GTX는 A~F 노선의 연장과 신설에 대해 그동안 용역한 결과를 큰 틀에서 보고드렸다”면서 “이 중 상당 부분은 후임 자가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일”이라고 말

“공급 축소, 빠르면 2년 뒤 가격 급등 요인…집중 관리”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금 직접 돌려줘야’ 요구는 선 넘는 것”

그러면서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건축 경기에 무리한 부양 없이 (부동산시장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능력과 안목이 뛰어난 분으로 들었다”며 “중간에 자문받은 적도 있어 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혁신 방안 ▲ 층간소음 해소 방안 ▲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설 계획 등 국토부 주요 현안을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중 다음주께 발표하는 LH 혁신안과 층간소음 관련 추가 대책은 매듭짓고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철도지하화 계획은 법안이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

했다.

시행 6개월을 맞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나가구, 신탁, 근생빌айн 전세사기 등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보완해야 한다”면서 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 구제·후(後) 회수’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 남은 쟁점이 결국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라는 얘기인데, 마음은 아프지만 민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국가가 직접 대신 변제해달라거나, 전세사기 아닌 단순 미반환 성격이 강한 것까지 국가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 금액 또는 미반환 금액을 직접 돌려주면 피해금을 받고 빠지겠고, 나머지는 세금 낸 국민과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선 “예타안 또는 대안대로 하라고 국토부가 고집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면서 “노선의 수립 과정과 타당한 방안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검증해도 좋으니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끌고 간다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판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에 대해서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 북항 개발 계기는 엑스포였으나, (결국) 지역균형 발전과 부산·울산·경남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것은 뚜벅뚜벅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현대차 울산 수출선적부두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

‘무역의 날’ 60년 기념식 현대차 300억달러 최고 수출탑

현대차가 60번째 무역의 날을 맞아 최고 수액인 ‘300억달러 수출의 탑’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하는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1천704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은 전년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한 회사가 새 수출 신기록 구간에 진입할 때 주는 상이다. ‘수출 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에서 현대차는 지속적 수출 확대 노력의 결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난 310억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해 올해 최고 수액인 ‘300억달러 수출의 탑’을 받게 됐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아도 20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LG이노텍(100억달러), 삼성SDI(60억달러), 엘엔에프(40억달러),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30억달러), 에코프로이엠(20억달러), 경신(10억달러) 등도 각각 자체 수출 신기록을 경신해 ‘수출의 탑’을 받았다.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중 대기업은 36개사였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13개사, 1천555개사였다.

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의 91%는 중소기업이 차지했다”며 “산업군 별로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가 최고 수출탑을 4번 수상했고, 자동차 업체가 수출의 탑 최고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그해 최고상인 1천100억달러 탑과 1천200억달러 탑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손보의 LX세미콘 대표이사를 비롯한 무역 유공자 총 596명이 금탑·은탑·동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을 받는다. 정부 포상과 별도로 무역협회도 수출 유공 기업인 80명에게 협회장 표창을 수여한다.

/ 이준혁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더롭게

세심하게 지원해 주니까,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맛집 등극!
행하고 해볼늘이 오긴 오네요!

#신한카드 #소상공인지원 #시장님김동
#MyShop파트너 #MyCredit #금융으로 일상을이롭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MyShop 파트너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MyCredit 서비스

준법감사 심의필 제20230623-Exn-002호(2023.06.23~2024.06.22)

Lead by 신한카드

“삼성 갤럭시S23 전작보다 23% 더 팔려…글로벌시장도 회복”

하나증권 보고서…아이폰15 첫 두 달 판매량은 전작보다 8%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가 전작보다 20% 이상 많이 팔렸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4일 하나증권의 ‘10월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 S23 시리즈의 첫 9개월 판매량은 2천506만 대로 같은 기간 S22 시리즈 판매량(2천32만 대)을 23% 상회했다. 갤럭시 S23 울트라가 1천163만 대, 플러스가 452만 대, 기본형이 891만 대 각각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말 공개된 폴더블폰 갤럭시 Z5 시리즈의 첫 3개월간 판매량은 486만 대(플립 308만 대, 폴드 179만 대)로 같은 기간 Z4 시리즈(468만 대)보다 4% 많이 팔렸다. 다만 삼성전자의 10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8%, 전월보다 2% 각각 감소했다고 하나증권은 전했다.

최근 신모델 출시가 없었던 삼성전자와 달리 9~10월 순차적으로 아이폰15 시리즈를 내놓은 애플은 10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 전월 대비 40%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15 시리즈의 첫 2개월간 판매량은 2천399만 대로 14시



리즈의 동기간 판매량보다 8% 저조했으나, 이는 출시일이 지난 해보다 1주일 가량 늦었기 때문이라고 하나증권은 분석했다.

또 10월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보다 4% 증가한 1억1천344만 대로 최근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아이폰 신모델 출시와 중국 시장 내 화웨이의 부활, 인도와 중국의 출체 및 프로모션 영향 덕분이라고 하나증권은 분석했다.

/ 최순호 기자

농식품부·스타벅스 손잡았다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4일 중구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 농산물 정보를 스타벅스에 제공하고 농산물 조달을 지원한다.

스타벅스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식품을 개발하고 농가에 커피와 토비를 기부한다. 스타벅스는 협약 이후 첫 제품으로 내년 상반기 가루쌀 활용 푸드

상품을 출시한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분쇄해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이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통해 우리 농가는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스타벅스는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적 기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가루쌀 등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더 많은 고객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료와 푸드를 찾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가와 ‘상생 스토리’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라는 가로등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날

우리금융그룹은
청년들의 한 걸음 앞에서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기에
도전에 드는 부담은 줄이고
목돈을 모을 기회는 늘려서

어두운 현실에 꿈이 길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들 곁에
우리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지상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좋잖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석이 생길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 톡으로 뚝딱!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비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KB증권

'이정후 영입 전쟁' 5일부터 시작…MLB 전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

키움 단장 "포스팅 자격 갖추고 도전하는 이정후 앞날 응원"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를 원하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의 영입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이정후의 소속팀 키움은 4일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고지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4일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MLB 사무국이 30개 구단에 이정후 포스팅을 고지하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 오후 5시까지 이정후는 MLB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정후의 MLB 진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후 10시다.

협상 만료일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다음 달 3일 오후 5시, 한국시간은 다음 달 4일 오전 7시다.

만약 이 기간에 MLB 구단과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1월 1일 이후 자유계약선수(FA) 또는 구단 승낙이 필요한 포스팅 시스템으로 다시 미국행을 추진해야 한다.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하면 키움에서는 강정호(2014년·피츠버그 파이리츠), 박병호(2015년·미네소타 트윈스), 김하성(2020년·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이어 구단에서 네 번째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밖으로 무대를 밟는 선수가 된다.



고형우 키움 단장은 "포스팅 자격을 갖추고 더 큰 무대를 향해 도전에 나서는 이정후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정후의 계약금 총액에 따라 원소속팀 키움이 받는 이적료는 달라진다. 키움은 이정후가 총액 2천500만 달러 이하에 계약하면 보장 금액의 20%를 받는다.

총액 2천500만 달러~5천만 달러면 최소 기준선 2천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와 2천500만 달러를 초과한 보장 금액의 17.5%를 챙긴다.

여기에서 총액 5천만 달러를 초과하면 5천만 달러까지의 보상액 437만5천 달러에 5천만 달러를 넘긴 액수의 15%를 추가로 받는다.

이날 미국 야후스포츠는 MLB 트레이드 시장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MLB 트레이드 루머스'를 인용해 이정후가 5년 총액 5천만 달러(약 650억원) 수준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타율 3할을 기대할 수 있는 타격 정확도를 갖춘 중견수'를 찾는 팀이 늘어나 영입 경쟁이 불으면 계약 총액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USA 투데이는 '부자 구단' 뉴욕 메츠가 이정후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메츠가 이번 겨울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의 중견수 이정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정후의 MLB 포스팅 날짜를 가장 먼저 전했던 MLB 네트워크 존 헤이먼 기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앤스(구 트위터)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디에이고, 뉴욕 양키스를 비롯한 많은 팀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를 보기 위해 피트 퍼렐리 단장이 직접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을 만큼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낸 팀이고, 샌디에이고는 후안 소토를 정리하고 그 대안으로 이정후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 최준용 기자



격하게 항의하는 훌란

'논란의 판정'에 마지막 기회 무산 훌란, SNS서 심판 저격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훌란이 토토넘전 종료 직전에 나올 뻔한 회심의 역습을 막은 심판을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날을 세웠다.

맨시티는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손흥민이 펀토트넘과 3-3 무승부를 거뒀다.

3-2로 승리하는 듯했으나, 후반 45분 데얀 쿰루세브스키에게 동점 헤딩 골을 허용하며 승점 1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 후 훌란은 엑스(X·엣 트위터) 계정에서 놀라움이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영어 비속어 줄임말인 'WTF' 문구와 함께 후반 추가 시간 자신의 침투 패스를 시도하는 경기 영상을 게재했다.

3-3으로 팽팽한 후반 추가 시간 훌란은 센터서클에서 공을 잡았으나 토토넘의 에메르송 로얄의 태클에 잠시 몸의 균형을 잃었다.

이때 사이먼 후퍼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라는 수신호를 보이자, 훌란은 곧장 전방에 있는 짱 그릴리시를 향해 침투 패스를 공급했다.

그릴리시가 토토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공을 잡으려 하자 돌연 후퍼 심판은 경기를 멈추더니, 뒤늦게 에메르송 로얄의 반칙에 따른 퍼리킥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릴리시가 그대로 골문까지 전진했다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아 맨시티의



한국에 첫승을 안긴 신진서 9단

신진서는 농심배에서 4년에 걸쳐 파죽의 11연승을 이어갔다.

앞서 22~24회에서 10연승을 거두며 3년 연속 한국 우승을 견인했었다.

농심배 11연승은 1~6회 대회에서 한국에 6연속 우승을 안기면서 14연승을 기록한 이창호 9단에 이어 역대 2위 기록이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했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했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했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했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했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했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신진서는 대국 후 "한국 바둑이 위기 상황이지만 (부담 없이) 내 바둑을 두고자 다짐는데 괜찮은 내용으로 이

10주년 맞은 '나혼산'…전현무 "1인가구 향한 시선 달라져"

기안84 “일상만 보여줬는데 사랑받아 감사한 마음”

“처음 ‘나 혼자 산다’가 시작할 때는 혼자 사는 사람을 ‘짠하게’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너무 다양하게 1인 라이프를 즐기는 세상이 돼서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방송인 전현무)

MBC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 10주년을 자축했다. 2013년 설 명절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남자가 혼자 살 때)이 인기를 얻어 그해 3월 22일 정규 프로그램으로 처음 방송됐고, 이후 휴식기 없이 자리를 지키며 MBC의 간판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

4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전현무는 “초창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정서가 강했다면, 지금은 혼자 당당히 잘 사는 모습을 응원해준다는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방송 첫해부터 여러 차례 하차와 복귀를 거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온 전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자간담회

무는 “이젠 ‘결혼하라’는 얘기도 들리지 않고, 전과 비교하면 세태가 바뀐 것 같다”며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오래 하다 보니 대중이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전현무와 웹툰 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 코미디언 박나래, 배우 이장우,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 작곡가 겸 프로듀서 코드 쿠스트, 아나운서 김대호 등 출연진이 참석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하는 ‘나 혼자 산다’는 연예인들의 소탈하고 꾸밈없는 일상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송 초창기엔 혼자 사는 연예인의 쓸쓸한 모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출연자가 취미나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장우가 최근 방송분에서 자연산 굴을 ‘풀 코스’로 즐기는 모습이 담기고, 웹

툰 작가 기안84가 마라톤에 도전하는 과정이 방송에 담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웹툰 작가 기안84는 “먹고 자는 모습이 노출되는 것만으로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싶은 기분이 들 정도로 관심도 사랑도 많이 받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7년 ‘나 혼자 산다’에 처음 출연한 기안84는 꾸밈없고 유동한 모습이 큰 인기를 얻어 다른 여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의 별명인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에서 제목을 따온 MBC 예능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는 현재 세 번째 시즌이 방송 중이다.

연출을 맡고 있는 허향 PD는 프로그램의 장수 비결을 “제작진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진실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어 “모든 회원(출연자)이 일상을 거짓 없이 보여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제작진은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매진한다”며 “그런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의 ‘영혼’”이라고 강조했다. / 김민경 기자



‘10년 난민활동’ 배우 정우성

“민주주의 국가서 이정도 목소리 내야”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 사회에서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정우성(50)은 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법조공의모임 나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토크 콘서트 ‘난민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정우성은 2014년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을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레바논과 낭수단, 로힝야, 폴란드 등 주요 난민 발생 국가를 찾았다.

그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도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등 꾸준히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다. 2019년엔 난민 관련 활동 5년을 기록한 에세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펴냈다.

정우성은 “난민이라는 단어는 아주 긴 박한 위기 상황에 몰려 도움이 필요하다

는 것을 지침한다”며 “일부에서 이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넣고 다른 이야기들을 얹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하는 게 다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난민 이슈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다.

또 “지금, 오늘,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살고 있지만 전쟁 등이 발생하면 언제든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그간 각국에서 만난 난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난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분쟁이 있어서 떠나야 하더라도 당연히 다시 돌아오고 싶은 것처럼 난민들의 최종 목적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염치 없어하는 게 난민들”이라며 “이들은 자기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이민주 기자

BTS RM·뷔 각각 입대…지민·정국은 동반 입대

소속사 “별도 공식 행사 없어…현장 방문 삼가 달라”



과 정국은 동반입대할 예정”이라며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공지했다.

빅히트뮤직은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RM, 지민, 뷔, 정국을 향한 따뜻한 배웅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이달 입대하는 네 멤버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소속사는 오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 황수진 기자

더욱 뜨겁게 돌아온 ‘솔로지옥3’



더 학끈하고, 과감해진 넷플릭스 연애 리얼리티 시리즈 ‘솔로지옥’ 시즌3이 내달 12일 공개된다.

연출을 맡은 김재원 PD는 4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솔로지옥’ 제작발표회에서 “시즌1, 2의 장르가 로맨스였다면 이번 시즌은 로맨티 코미디”라며 “웃긴 장면도 많고, 로맨티 코미디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혐관’(캐릭터가 서로 싫어하는 관계)도 재밌게 풀어진다”고 말했다.

‘솔로지옥’은 지옥도라는 이름의 무

인도에 갇힌 싱글 남녀들의 모습을 담아낸 데일리 리얼리티쇼다. 시즌2는 지난해 12월 13일 공개된 이후 4주간 누적 시간 6천508만 시간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는 시즌1의 시청시간(6천220만 시간) 보다 많은 수치다.

김 PD는 이번 시즌에서는 더욱 거칠 없는 출연진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솔로지옥’하면 떠오르는 ‘핫한’ 외모와 성격을 지닌 분들을 캐스팅했다”며 “특히 카메라 앞에서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분들이 출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가감 없이 현장에서 발생한 일들을 다 보여주는 식으로 기조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 박지원 기자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를 가치있게!

2023.12.1. ~ 2024.1.31.

2022년 지원금액

784억

지원대상

어동 / 학생 134억

노인 69억

장애인 30억

성인 31억

2022년 모금금액
799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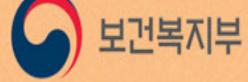


사랑의열매는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우리 이웃들에게 지원됩니다.

자세히보기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나눔 가치있게!
생장을 가치있게!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를 만나면

신규·휴면 손님 대상
3개월간 300만원까지



하나를만나면
CMA(RP형)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 기간 : 2023년 10월 13일(금)~12월 31일(일)
 - 대상 : 아래 대상에 해당하면서 본 광고의 이벤트 참여 QR코드로
비대면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한 손님
1. 하나증권 최초 신규 손님(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회 참여 가능)
 2. 이벤트 신청 전일 기준 3개월간 하나증권 잔고가 0원 손님

하나가 드리는 이벤트 혜택

- 하나.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 둘. 국내/해외 주식거래 우대수수료 적용
- 셋. 애플 소수점주식 1천원상당 증정

문의 : 하나증권 손님케어센터 1588-3111

[이벤트 유의사항] ※본 이벤트는 하나증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본 광고의 QR 코드가 아닌 타 매체를 통해 계좌개설한 경우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 이벤트는 개인손님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외국인 제외) ※본 이벤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SMS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신 손님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상이하여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계좌가 폐쇄되는 경우 등에는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됩니다. ※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지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수익률 적용기간(연 7.0%, 세전, 계좌개설일로부터 3개월) 종료 시에는 종료 시점에 고시된 수익률(2023.09.10 기준 연 3.15%, 향후 변동 가능)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141639%,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방법에 따라 상이(미국 0.25%, 중국 0.30%, 등)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매매 시 주당 0.003 USD, 매도 시 0.0008%, 중국주식 매매 시 0.00841%, 매도 시 0.05841% 제비용을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에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 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 가격 혹은 실제 배당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소수 단위 보유분에 대해서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784호(2023.10.16~2023.12.31) ※하나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194호(2023.10.18~2023.12.31)



이벤트 참여 QR코드

하나증권